

圖 6. 南韓出土 遼寧式銅劍

로운 編年을 確定한다는 것은 時機尙早이고 關連된 文化內容의 綜合的 年代考察을 土臺로 해서 妥當性 있는 資料와 證據의 蒐集에 于先 努力해야 할 것이다.

## 慶州 皇南洞 第一百十號 古墳發掘調查略報

沈 載 完  
李 殷 昌

그런데 昨年에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이 典型的 遼寧式銅劍이 發見되었다. 이 銅劍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가 알 수 없으나 南韓地方에서 近年에 나온 것만은 확실하다. 아직 이것에 대한 詳報를 얻지 못하고 있으나 그 銅劍들은 全長 약 四〇cm로 그 形態는 圖六과 같고 그것이 南山根村 例보다는 十二臺營子例에 가까운, 下半이 크게 불룩한 形式이다. 이 太

細의 差가 年代의 差를 反映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至今까지의 韓國式細形銅劍들과는 範疇을 달리 하는 典型的 遼寧 形式이며 銅質도 錫분이 많은 韓國式銅劍들과는 달리 붉은 銅質이다.

이 銅劍을 낸 遺蹟의 性格이나 伴出物을 알 수 없는 것은 매우 遺憾이나 이 銅劍의 出現은 南山根村例에서 알게 된 年代와 함께 實로 여러 가지 問題들을 우리나라 靑銅器文化에 던져주는 것이며 그것이 혹시 石器時代 韓半島에 偶然히 흘러들어온 遼寧地方製品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先史文化에 대해 여러가지로 再檢討를 해야 할 契機가 到來한 것 같다. 그리고 從來의 靑銅器時代編年이 흔들리게 된 것은 事實이나 이 遼寧式銅劍의 새로운 年代나 우리나라에서의 出現을 가지고 當장에 새

慶州 味鄒王陵地區 淨化事業에 따른 古墳發掘事業이 進行되어 嶺南大學 博物館에서는 一九七三年 六月 十三일부터 七月 二十三일까지 皇南洞 第一百十號古墳을 發掘調査하였다.

이 第一百十號古墳發掘調査報告書는 當局에 依하여 刊行되었으나 우선 여기 그 概要를 記述하고자 한다.

皇南洞 第一百十號古墳은 慶州市 皇南洞 垓三十一番地의 一號에 所在하고 있으니 곧 鷄林西北쪽 味鄒王陵 後側인 北쪽에 位置하고 있다. 이 一帶는 金氏王室의 根據地요 또 그 陵墓地인 지라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皇南洞, 皇吾洞, 仁旺洞, 路東洞, 路西洞等 一帶에 大小古墳이 즐비하게 分布되고 있어 마침내 新羅古都의 一大古墳群을 形成하고 있다.

그리고 今般 發掘調査된 皇南洞 第一百十號古墳은 味鄒王陵 後便에 百七號, 百八號, 百九號, 百十一號, 百五十三號 等과 같이 相互 隣接하면서 分布되어 있다.

第一百十號古墳은 百號古墳부터 百十四號古墳까지와 百五十二號古墳부터 百五十四號古墳까지 約十餘基의 大小古墳이 群集한 가운데

에 섞여 있는 古墳이다. 그리고 이 古墳은 前述한 마와 같이 味郷王陵 直後に 있으며 鷄林路 西邊에 있는 原形을 잃은 破壞古墳으로 比較的 작고 낮은 封土를 보이는 古墳이다.

封土는 民家地域에 들어 있어서 大部分 破壞 侵蝕되어 있으니 곧 보보食堂이 封土 北쪽을 侵蝕하고, 鷄林路에서 皇南洞民家에 通하는 步道가 封土 南쪽을 侵壞하여 大體로 그 封土의 모습은 마치 東西로 긴 橢圓形의 古墳封土가 남아 있었다. 封土 上部는 보보食堂의 세멘트 보르크墻이 쌓이고 또 아까지아 나무를 심어 生울타리를 造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雜多한 民家와 通路 等으로 侵蝕되어 封土의 土中 깊숙이 破壞되어 元來의 크기를 짐작할 수 없었다.

發掘調査 經過: 發掘調査團은 六月 十三日에 現場에 投入하여 七月 二十三日까지 十四日間에 걸쳐 攝氏 三十五、六度の 炎暑 속에서 發掘 作業이 繼續되었다. 大體로 다음과 같은 調査順序와 作業要領에 依하여 進行되었다.

七三年 六月 十三日—現場에 發掘調査團 一行이 到着

六月 十四日—六月 十六日: 現場의 測量기 作業과 이 밖에 여러가지 準備作業 그리고 地形測量을 完了

六月 十八日: 慰靈祭를 舉行

六月 十九日—六月 二十七日: 封土에 十字形 트레치를 넣어서 地層 積石槨部를 調査하였다.

六月 二十八日—六月 三十日: 封土除去作業을 實施하여 六月 三十日에 主槨과 副槨의 積石部가 完全히 露出 確認되었다.

七月 一日—七月 五日: 主槨, 副槨의 積石陷沒部의 흙을 파내고 積石 陷沒狀을 完全히 露出시키어 主槨과 副槨의 積石部를 實測하고 그 平面圖를 作成하였다.

七月 六日—七月 十日: 主槨, 副槨의 積石陷沒部의 흙을 파내고 土에 끼어 있는 粘土를 除去하여 積石槨陷沒部를 完全 露出시키고 實測하여 그 平面圖와 斷面圖를 作成하였다.

七月 十一日—七月 十七日: 主槨, 副槨의 積石陷沒部의 土를 들어 내고 遺物層을 露出시키었다. 七月 十七日에 遺物配置狀況을 撮

影하고 그 遺物配置圖를 作成하였다.  
七月 十八日—七月 十九日: 遺物을 收拾함

二

古墳의 封土는 앞에서 記述한 馬와 같이 大部分 破壞되어 元來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相當히 컸던 것으로 생각 되었다.

보보食堂의 建物이 侵蝕하여 封土의 殘存은 겨우 地上高 一五五cm, 低面은 東西直徑이 一五m, 南北直徑이 九m로서 곧 東西로 길고 南北으로 짧은 封土가 남아 있다. 封土의 正確한 原形과 크기는 모르겠으나 元來의 封土의 三分의 一以上이 侵蝕 또는 破失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原形 大는 皇南洞古墳群의 封土大의 三次位에 該當하는 封土를 갖추었으리라

고 推定된다. 封土의 地層은 大體로 礫石이 섞인 土層과 粘土層이 交互로 築造되었는 바 積石部의 陷沒 때문인 지 南北斷面의 地層은 V字形으로 築積되어 있었다.

封土頂上에서 一三〇cm 下에 積石槨이 築造되었는 바(圖1) U字形으로 陷沒되어 그 深이 積石部로부터 一六〇cm이며 積石部 上部 平面은 東西(主槨과 副槨을 包含한 것) 九·七m 南北 四·二m의 大體로 長方形의 積石部를 이루고



圖 1. 第110號古墳積石部(陷沒 모습) 東쪽에서 본 主槨과 副槨

있다.

墓槨은 主槨과 副槨으로 築造되었다. 主槨은 主人公이 누워 있는 墓室로 되어 있는데 가로 5m 세로 3·1m의 넓이로, 深은 地表에서 一·三八cm, 封土頂上에서 三·1m의 地下까지 長方形으로 땅속을 파서 墓槨을 만들었다. 그리고 墓槨바닥(墓床)에 木棺을 놓고 다시 木槨을 設하고 川石(닛돌)으로 側壁을 設하고 積石하였다. 副槨은 主로 副葬品이 들어 있는 別室인데 東西(가로) 三·1m 南北(세로) 三·1m의 넓이로, 深은 地表에서 一·1m 封土에서 二·八二m까지로 대개 正方形으로 땅속을 파서 副槨을 設하고 川石(닛돌)으로 側壁을 쌓고 木槨을 營設하여 그 위에 積石하였다.

主槨과 副槨은 大體로 東西一直線을 取하여 中間에 間壁을 두고 縱으로 配置하였다. 이 主槨과 副槨의 墓制는 洛東江流域의 伽倻墓制의 하나인 主室, 副室의 配置모습과 相通되는 것으로 注目되며, 다만 新羅에서는 木槨積石塚이고 伽倻에서는 石築石室槨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兩者同一한 性格과 意匠을 보이고 있다.

이 積石部의 築造方法은 大略 頭形大의 川石(닛돌)을 累積築上하여 上表面은 長楕形半球狀을 形成하고 그 위에 粘土를 덮어 바르고 그 위에 封土를 덮었다.

遺物配置狀況을 보면 主槨과 副槨은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主槨(圖2)은 主人公이 安葬된 墓槨으로 木槨積石塚이었던 것이며 木槨에 使用되었던 「귀쇠」가 墓槨가에 長方形으로 散在하고 있었다. 頭上部에는 土器群이 副葬되었고 그以西로는 冠飾, 耳飾, 頭飾, 鎊帶等 裝身具가 配置되었다. 그리고 側面에는 刀劍等이 있었고 頭上部 土器群 사이에는 鐵斧, 鐵刀子 鐵鎌等 農工具類와 環頭太刀, 鐵鉞等 武器類와 雲珠, 杏葉等 馬具類가 副葬配置되어 있다.

副槨(圖3)에는 土器類가 가장 많이 副葬되어 있다. 西南隅로 高杯가列을 지어 넘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 副槨 全面에는 主로 大甕, 항아리等 土器가 깔려 있었다. 이 土器群 사이에는 馬具類와 農工具類等 이 副葬 配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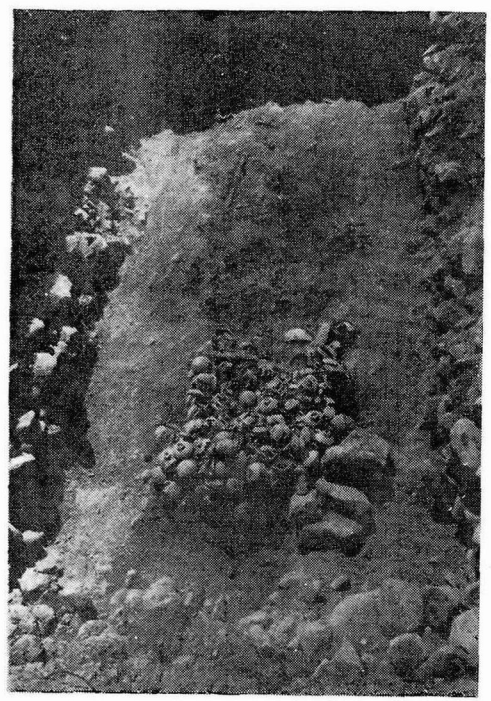


圖 2. 第110號古墳의 遺物配置狀況(主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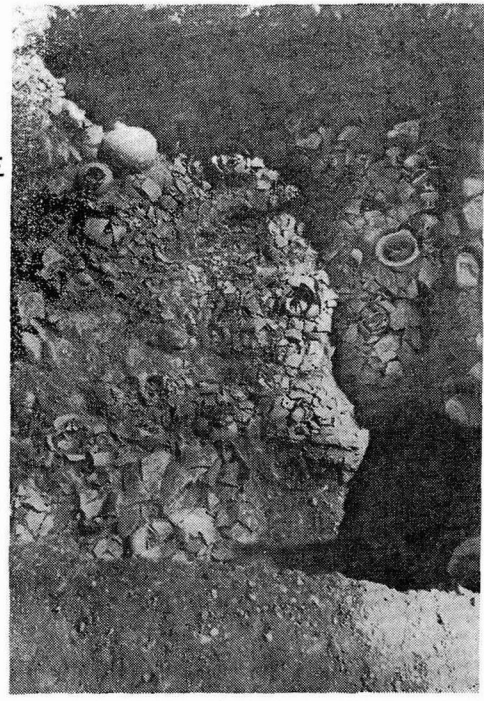


圖 3. 第110號古墳의 遺物配置狀況(副槨)

上述한 바와 같이 主槨과 副槨에서 많은 遺物이 出土되었다. 主槨에

三

서는 裝身具 一〇點、土器 一三七點、農工具 九點、武器 四九點、馬具 六點、其他 四七點、都合 三五八點에 達하며、副柳에서는 土器 六六點、農工具 一四點、馬具 一九點、其他 二點、都合 一〇一點에 達하니 大體로 總計 四五九點에 이르고 있다. 이들 遺物의 內容은 다음 目錄과 같으며 그 重要 遺物의 모습은 다음에 記述하여 보고자 한다.

◎ 主柳에서 出土된 遺物

區分	品名	數量	備考
裝身具 (一〇點)	金製細環式耳飾	一雙	破損으로 一個는 垂飾이 없고 一個는 垂飾一部가 남았을 뿐이다
	金製細環式耳飾	一雙	
土器 (二三七點)	金銅製耳飾	一雙	圓板垂飾形(二個는 破失) 單環(細環式)
	金銅製耳飾	一雙	
	木걸이	一	비취曲玉 一個와 「유리옥」 一七個로 되어 있음
	純金製環	二	大·小 二個의 金環이 連結되어 있음
	鎊帶	一	비단에 金板飾한 것임
	金銅製鳥羽異形前立飾	一	鐵心銀張으로 되어 있음
	心葉形鎊帶金具	二	鐵心銀張으로 되어 있음
	高杯	一〇八	復原 確認된 것
	蓋杯	四七	
	赤色土器	一八	
短頸壺	四		
長頸壺	八		
耳付高杯	二		
大甕	二		
高杯平경	九		
農工具 (九點)	有臺長頸壺	一	
	器蓋	二	
	鐵鎌	一	
鐵斧	二		
鐵刀子	六		

區分	品名	數量	備考
武器 (四九點)	點鐵	三	未整理로 大略推定 되는 數量
鐵鎗	二		
鐵鍬	四〇여점		
太刀	一		
銀裝小刀付環頭刀	一		
鐵製有刺武器	三		

區分	品名	數量	備考
馬具 (六點)	銀裝馬具	五	
其他 (四點)	絞具	一	
	土陶추	二	
	鐵製적쇠	一	
	鐵器片	二	
치아	一		
土製球	一		

◎ 副柳에서 出土된 遺物

都合 三五八點

區分	品名	數量	備考	
土器 (六六點)	高杯	二九	未復原으로 正確한 數量알 수 없음	
	蓋杯	一		
	短頸壺	二七		
	長頸壺	一		
	有臺長頸壺	一		
	有臺盤	一		
	大甕	二		
	赤色土器	四		
	農工具 (一四點)	鐵鎌		二
		鐵斧		二
馬具 (一九點)	鐵心銀張杏葉	五	未復原으로 大略推定되는 數量임	
	鐵心銀張雲珠	八		

其他 (二點)	鐵製鉸具	二
	鐵製鏡子	二
鐵製鞍輪	鐵心銀張鞍輪	二
	鐵製鞍輪	一
其他	치아	一
鐵器片		一
都合 一〇一點		

以上の古墳の特色を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墓槨이 主槨과 副槨으로 區分되어 있고 이것이 長方形으로 配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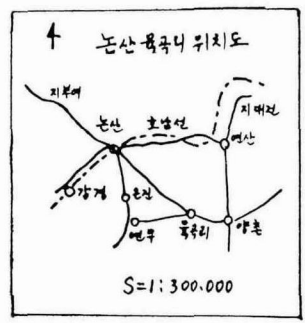
둘째로 金製耳飾, 목걸이, 金銅製冠飾 鈔帶 등이 出土되고 또 黑漆地에 朱漆龜甲紋으로 裝飾한 木棺을 使用하였다.

세째로 副葬品을 通하여 當時의 生活樣相과 文化發展相을 짐작할 수 있다.

# 論山 六谷里的 百濟古墳과 出土遺物

姜 仁 求

論山郡 可也谷面 六谷里는 論山에서 東南쪽으로 二二km 쯤 떨어진 可也谷面의 所在地이다. (圖一) 古墳이 發見된 可也谷面 所在地在에서 다시 東南쪽으로 八〇〇m 쯤 가면 六谷里 「여술」 部落이 나타나는데 이 마을의 뒷산인 「단두리」 재의 南斜面 中턱에서 發見되었다. 이 「단두리」 재 南斜面에는 濟百時代의 古墳이 數十基 密集되어 있었으나 거의 모두 破壞되고



현락을 取하고 二六日에 徐聲勳 學藝員과 함께 現地調査를 實施하였고 論山地方에서는 처음 發見된 百濟式石室墳이라는 點에서 報告하여 두는 것이다.

古墳은 前記 한 바와 같이 「단두리」 재의 南斜面에 位置하고 砂防工事로 斜面을 60度 程度의 急傾斜로 깎아내렸고 그 急傾斜의 中턱에 매달려 있었다. 古墳의 羨道蓋石은 工事中 無心히 分離하여 斜面 아래에 굴러뜨렸고 遺物들은 이미 引出한 後였다.

古墳은 山에서 흔히 發見되는 自然石으로만 築造한 石室이었으며 內部에는 沈澱된 粘土가 三〇cm 程度로 쌓여 있었다. (圖二)

古墳의 封土는 워낙 傾斜面에 位置한 데다가 漸次 山麓을 깎고 집들을 짓는 바람에 더욱 急傾斜가 되어서 古墳 위에서 흘러 내린 흙으로 덮여 封土의 形態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石室은 長軸을 正南北方向을 取하고 있으며 長方形인데 長이 二四二cm 幅 一二五cm 이다. 壁體와 天井 모두 自然石으로 築造하였는데 東壁은 長四〇cm 高四〇—五〇cm 의 다듬지 않은 돌로 第一段을 놓고 다시 그 위에 粗작은 돌을 올려놓아 壁體를 만들고 있는데 西壁도 대체로 東壁과 同一한 樣式이다. 壁의 高는 大略 八〇—九〇cm 이고 그 위에 二五×二五cm 의 돌을 한 줄로 놓아 斜面을 만들고 그 위에 自然石板狀石 五枚를 올려 놓아 天井을 構成한 이른바 平斜天井式石室①을 이루었다. 北壁은 第一段에 三個의 돌을, 第二段에는 二個石, 第三, 四段에는 一個의 長臺石을 놓았는데, 第二段부터는 그 위에서 부터 漸次 堆積하는 式으로 하여 대체로 梯形